2019. 7. 10. (수) 언론보도

경기신문

2019년 07월 10일 (수)
종합 02면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준비 착착

내년 3월까지 관련 연구용역 진행

생태 DB 구축 지역별 관리안 강구
환경 보전·훼손 방지 선제 대응

경기도가 DMZ 내 생태보존을 위한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추진에 착수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DMZ 생태보전(훼손지역 복원 등) 및 생태평화지구 조성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모두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가 맡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DMZ 생태환경에 대한 체계적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DMZ 일원의 지속적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데 따른 생태환경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DMZ 인접지역의 생태·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의 중요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해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존권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됐던 경기북부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단 복안이다.

그동안 DMZ 일원의 생태환경은 우수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진데 반해 체계적 자료와 활용방안 등은 미흡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쳐 생태평화지구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DMZ 생태환경의 컨텐츠를 이용한 관광개발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기여, 경기북부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isgus1@

중부일보

2019년 07월 10일 (수)
수도권 08면

DMZ청소년 탐험대 참여자 40명 모집

20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
총 4번 걸쳐 모둠별 프로젝트

DMZ 일원을 탐험하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DMZ 청소년 탐험대'가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4주간 김포·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19 DMZ 청소년탐험대'에 참여할 청소년 4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DMZ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자 경기도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천2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총 4차례에 걸쳐 DMZ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탐방을 연계한 모둠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회차는 오는 20일 파주에서, 2회차는 27일 연천에서, 3회차는 8월 3일 김포에서 각각 개최되며, 마지막 4회차는 캠프그리브스에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생태탐방로 지전거 투어, 황포돛배, 대명항 평화누리길 도보탐방, 도라 전망대 및 제3땅굴 방문, 캠프그리브스 탐방 등 DMZ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건국대 전영선 교수, 통일교육원 김정수 교수, 심용환 작가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DMZ의 역사, 평화와 통일의 의미에 대한 특강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DMZ 골든벨, 전략도미노, 그리브스티어링 등 DMZ 역사와 생태 환경에 관한 지식들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게임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게 된다. 4회에 걸쳐 모둠별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은 9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DMZ 세계생태평화 축제'에 전시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중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40여명으로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dmz.ggtour.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6만5천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02-3274-9319)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민기자

서울경제

2019년 07월 10일 (수)
전국 29면

'DMZ 청소년탐험대'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2019 DMZ 청소년탐험대"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차례에 걸쳐 DMZ청소년탐험대를 운영한다. 1회차는 오는 20일 파주에서, 2회차는 오는 27일 연천에서, 3회차는 다음 달 3일 김포에서 각각 개최하고, 마지막 4회차는 캠프그리브스에서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진행한다. 도는 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6만5,000원이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생태탐방로 자전거 투어, 함포돛배, 대명항 평화누리길 도보탐방, 도라 전망대 및 제3땅굴 방문, 캠프그리브스 탐방 등 DMZ 구석구석을 탐방하게 된다. /수원=윤종열기자